朝鮮本『唐駱賓王詩集』板本에 관한 一考*

당 윤 희**

1. 들어가는 말
2. 駱賓王과 駱賓王의 詩文集
3. 朝鮮本 駱賓王 詩集의 刊行과 流轉
4. 朝鮮本 駱賓王 詩集의 체제와 특징
5. 나가는 말

초록: 朝鮮本『唐駱賓王詩集』은 明朝의 田瀾이 낙빈왕의 시 122편을 편정한『당낙빈왕시집』을 저본으로 하여 조선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은 현재 일본의 東洋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 책의 複製本이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중국에서 낙빈왕 시문집의 판본을 연구한 성과들과 한국과 일본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은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도 동일한 판본을 찾아볼 수 없는 孤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유전된 상황을 장서인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 책은 오우치 요시타카(大內義隆)의 대외무역의 물품으로 일본에 전래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스즈키 마토시(鈴木眞年), 기무라 소세키(木村素石), 그리고 와다 츠나시로(和田維四郎) 등을 거쳐 東洋文庫로 들어가게 되었다.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의 내용을 낙빈왕 시문집의 가장 이른 판본인 宋蜀刻本과 비교해보면,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은 송판본에 수록되지 않은 시들을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본을 淸代 陳熙晉의『駱臨海集箋注』와 비교해 보면, 일실된 시까지 모두 수록하고 있는『낙임해집전주』와 거의 동일한 수량의 시편이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선본에는 수록되었으나 宋本과 明翻元本,『낙임해집전주』에는 실리지 않은「登總持寺浮圖」는, 현재 宋之問의『宋之問集』에「登禪定寺閣 (一作登總持寺閣)」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낙빈왕 시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다.

본서의 저본이 된 중국본이 현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이 한국과 중국,

* 이 논문은 2013년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내 저명학자 및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성결대학교 중문과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중국어문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을 통틀어 유일한 孤本이라는 점은 그 자체로도 학술적 가치가 있지만, 중국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본 결과 본서는 내용면에서도 중국본을 보충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 낙빈왕, 조선본, 동양문고, 출판, 고서, 유통

1. 들어가는 말

조선본『唐駱賓王詩集』은 明 田瀾이 唐 駱賓王의 시 122題 131首를 詩體에 따라 분류하여 편정한 책을 저본으로 삼아 조선에서 다시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이다.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은 현재 일본의 東洋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 책의 複製本이 한국의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중국에서 낙빈왕 시문집의 판본을 연구한 성과들과 한국과 일본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은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에도 동일한 판본을 찾아볼 수 없는 孤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확인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가「朝鮮版『唐駱賓王詩集』攷」라는 논문을 통하여 이 책의 편저자와 판본 형태, 일본에서의 장서 상황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놓은 바 있다.[1] 본고는 상기 논문에서 밝혀진 자료들과 연구방법을 참조하고 중국과 한국의 연구 성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한편, 조선본 판본에 대한 실사와 여러 판본 간의 대조와 비교를 통하여 더 많은 자료들과 실제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의 판본학적, 학술적 가치를 더욱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조선본

1) (日) 藤本幸夫, 2006「朝鮮版『唐駱賓王詩集』攷」,『朝鮮學報』199・200 합병호.

『당낙빈왕시집』의 실사와 문헌 기록 등을 통하여 서지 형태 및 간행 시기와 배경 등을 살펴보고, 조선본과 중국본 『당낙빈왕시집』의 비교를 통하여 조선본의 내용과 체제의 구체적인 특징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책이 간행된 후 일본의 동양문고에 소장되기까지의 유전 과정 등을 살펴보는 것은 조선의 책들이 일본으로 유전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2. 駱賓王과 駱賓王의 詩文集

1) 駱賓王의 생애와 문학

저자 駱賓王(630?-684?)은 號가 梅林이며 婺州 義烏(지금의 浙江省 義烏縣) 출신이다.[2] 그의 출생년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체로 唐太宗 貞觀 연간 630년 경 전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재능이 뛰어나서 7세에 이미 詩賦를 지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전하고 있는「詠鵝」시는 7세경에 지은 것이라고 전한다.

낙빈왕이 청년이 되었을 무렵은 당태종이 붕어하고 '貞觀의 치세'라 불리던 부흥기가 끝나가던 때였다. 당시의 唐 왕조는 吐蕃 등 오랑캐의 침략과 藩鎭의 다툼으로 국경 지방이 늘 불안하였고 국가의 정세가 위태로웠다. 낙빈왕은 龍朔 원년(661)에 藩王인 道王의 휘하에서 附屬으로 있었으나, 4년 후 道王이 죽자 다시 벼슬길을 찾아야 했다. 乾封 원년(666) 對策에 응시해 東臺詳正學士라는 벼슬을 얻고 京師로 오게 된 낙빈왕은 경사에서 문명을 떨쳤으며 王勃, 盧照隣, 楊炯 등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그러던 중에 어떤 일에 연루되어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裵行儉이 그를 추천하

2) 낙빈왕의 생애에 관하여는 (中)黃淸泉 註釋, 2003 『新譯駱賓王文集』, 臺北: 三民書局; (中)駱祥發, 2010 『駱賓王全傳』, 상해: 상해인민출판사; 안병국, 1995「駱賓王 생졸년 小考」,『중국문학』23 등 참조.

여 咸亨 원년(670) 薛仁貴의 토번 정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咸亨 3년(673)에 南蠻이 반란을 일으키자 낙빈왕은 다시 遠征에 가담하여 四川, 雲南 등에서 종군하였다. 낙빈왕은 이 시기에 많은 변새시들을 창작하였는데, 당시 오랑캐의 빈번한 침입을 받던 당나라의 사회 상황과 변방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던 군병들의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낙빈왕은 전쟁에서 돌아온 후 武功主簿 등의 관직을 지내다가 義鳳 3년(678)에 長安注簿를 거쳐 다시 侍御史에 임명되었다. 낙빈왕은 侍御史로 임직하며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則天武后를 풍자하는 간언을 자주 올렸고 결국 하옥되기에 이른다. 儀鳳 4년(679)에 출옥한 낙빈왕은 突厥을 평정하는 원정에 따라가 종군하였으며 돌궐이 평정된 후 관직을 받아 海曲으로 부임하였다.

永隆 원년(680)에 자신의 고향인 臨海丞으로 부임하게 된 낙빈왕은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에 괴로워 하다가 결국 관직을 버리고 임해를 떠나 揚州로 갔고, 徐敬業을 따라 측천무후를 반대하는 반란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光宅 원년(684) 서경업의 반란군이 진압되면서 낙빈왕도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舊唐書』에 의하면 낙빈왕은 서경업의 무리와 함께 誅殺되었다고 하며,[3] 『新唐書』에 의하면 도망한 이후 행적이 묘연해졌다고도 한다.[4] 또 일설에는 낙빈왕이 도망하여 靈隱寺라는 절의 스님이 되었다고 하는데, 낙빈왕의 시집 가운데 수록된 동명의 시가 그 증거라고 한다.[5]

낙빈왕은 王勃, 盧照隣, 楊炯과 더불어 初唐四傑로 불릴 만큼 唐代 초기의 시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낙빈왕의 문학적 업적은 형식적인 면에서 五言律詩의 정형을 완성한 것과 七言長篇歌行詩의 발전을 이룩한 것이며, 내용적인 면에서는 초당의 화려하고 유미주의적인 문풍에 반대하여 風骨의 풍격을 불어넣었고 더불어 盛唐詩의 淸新한 격조를 갖추었다고 평가된다.[6]

---

3) 『舊唐書』, 「文藝本傳」, "敬業敗, 伏誅." ((中)黃淸泉 註釋, 2003『新譯駱賓王文集』, 516면 재인용)

4) 『新唐書』, 「文藝本傳」, "敬業敗, 賓王亡命, 不知所之." (위의 책, 516면 재인용)

5) 안병국, 1995 「駱賓王 생졸년 小考」, 『중국문학』 23, 50-51면.

특히 낙빈왕의 장편 7언 가행시는 새로운 제재의 개척과 내용의 심화, 그리고 구성의 신중함과 엄밀함 등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기상의 광활함과 풍격의 웅건함 그리고 시어 수식의 풍부함 등에서도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서, 明 胡應麟은『詩藪』에서 "가행시는 낙빈왕이 으뜸이다[歌行, 駱賓王爲冠])"라는 평가를 할 정도였다. 낙빈왕은 7언 가행시 뿐만 아니라 5언의 율시・배율・절구에서도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다. 그는 세 차례에 걸친 종군으로 오랫동안 변방에 머물렀기 때문에 변방의 생활을 자세히 관찰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쓴 5언시 중에는 從軍詩와 邊塞詩의 수량이 상당히 많으며, 초당사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 낙빈왕의 변새시는 호방한 기세와 자연스러운 선율에서 느껴지는 담백함이 그 특징인데, 그로부터 唐代 변새시의 시작을 볼 수 있다고 평가된다.[7)]

2) 駱賓王 시문집의 역대 판본

낙빈왕은 반란에 실패하여 도주한 후 종적을 감추었고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어 스스로 문집을 편찬할 겨를도 없었고 그의 문장들을 거두어 문집을 엮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후에 그의 문학적 재능과 왕실에 대한 충성이 인정을 받게 되어, 唐 中宗은 왕명을 내려 산실된 낙빈왕의 시문들을 모아 문집을 편찬하게 하였다. 郗雲卿은 이 임무를 맡아 흩어진 낙빈왕의 시문을 모아 10권으로 편찬하였고 문집의 편찬 경위와 낙빈왕의 생평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내용의「駱賓王文集序」를 지었다.[8)] 郗雲卿이 편찬한 낙빈왕 시문집의 唐代 판본은 상당히 성행하여 송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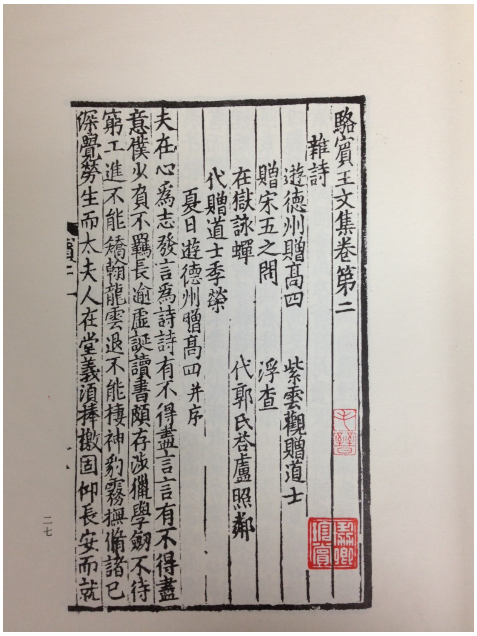
---

6) 안병국, 1984「駱賓王詩研究: 作品論」,『중국문학』11, 43-44면.

7) 백승석, 2010「駱賓王 詩文 성취의 재인식」,『중국어문학』55, 4-5면, 97-98면.

8) (唐) 郗雲卿「駱賓王文集序」, "駱賓王, 婺州義烏人也. 年七歲, 能屬文. 高宗朝, 與盧照隣·楊炯·王勃, 文詞齊名, 海內稱焉, 號爲四傑, 亦云盧·駱·楊·王四才子. 仕至侍御史. 後以天后卽位, 頻貢章疏諷諫, 因斯得罪, 貶授臨海丞. 文明中, 與嗣業於廣陵共謀起義. 兵事旣不捷, 因致逃遁, 遂致文集悉皆散失. 後中宗朝, 降勅搜訪賓王詩筆, 令雲卿集焉. 所載者卽當時之遺漏, 凡十卷. 此集幷是家藏者, 亦足傳諸好事. 魯國郗雲卿."((中) 黃淸泉 註釋, 2003『新譯駱賓王文集』, 513면 재인용)

명초까지 전해졌다고 하나 현재 일실되었다.


駱賓王文集卷第二
雜詩
遊德州贈高四　紫雲觀贈道士
贈宋五之問　浮查
在獄詠蟬
代郭氏答盧照鄰
代贈道士季榮
夏日遊德州贈高四 并序
夫在心爲志發言爲詩詩有不得盡言言有不得盡意僕少負不羈長逾虛誕讀書頗存涉獵學劒不待第工進不能矯翰龍雲退不能棲神豹霧摛脩諸已深覺勞生而太夫人在堂義須捧檄固仰長安而就

〈그림 1〉 宋蜀刻本『駱賓王文集』
上海古籍出版社 影印本

(1) 송대의 판본

이후에 宋代에 간행된 판본 중에 蜀 지역에서 간행한 宋蜀刻本이 유행하였는데, 이 판본은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986년 中華書局에서 이 송촉각본을 『古逸叢書』三編으로 간행한 바 있고, 1994년 上海古籍出版社에서 『宋蜀刻本唐人集叢刊』의 제1권으로 宋蜀刻本『駱賓王文集』을 영인하여 간행하였다.

이 송판본의 판식은 上下單邊 左右雙邊, 有界, 11行20字, 上下向黑魚尾이며, 권차에 따라 "賓一", "賓二" 등의 판심제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은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었는데, 1-5권까지는 송판본의 원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6-10권은 明 毛晉의 소장본에 근거하여 補版한 것이다. 이 판본은 송본임에도 불구하고, 권차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오탈자의 교감이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善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9]

그 외에 또 다른 송판본의 형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판본으로 嘉慶 21년(1816) 秦恩復의 石研齋刊本이 있다. 石研齋刊本은 嘉慶 12년(1807)에 淸 顧廣圻(1770-1839)가 影寫한 송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간행된 목판본이므로 송대에 간행된 판본은 아니지만, 송판본의 모습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 宣統 3년(1911) 上海 文瑞樓에서 石研齋本을 石印本으로 다시 간행하면서, 『駱賓王文集』, 『李元賓文集』, 『呂衡州文集』의 3종을 묶어 『唐人三家集』이라는 제목을 붙였다.[10]

9) (中) 葛亞傑, 2011 『駱賓王文集版本研究』, 절강대학 석사학위논문, 43-45면.

10) 한국에도 이 판본이 전하고 있는데, 규장각(청구기호: 奎中 5038)과 전남대(청구기호:

石研齋刊本은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었으며, 판식은 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 16.4 × 9.5 cm, 有界, 11行20字, 上下向黑魚尾이고 권차에 따라 “賓一”, “賓二” 등의 판심제를 가지고 있다. 형태사항은 宋蜀刻本과 매우 유사하지만, 내용 구성에 차이가 있다면 문집의 끝에 顧廣圻가 『文苑英華』에 수록된 낙빈왕의 문장과 대조하여 교감한 “駱賓王文集考異”가 붙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文苑英華』에는 낙빈왕의 詩篇이 수록되어있지 않으므로, 石研齋刊本은 詩篇에 대해서는 교감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石研齋刊本과 宋蜀刻本은 시구와 글자가 다른 것이 상당히 많으며, 간혹 송촉각본의 탈자가 석연재간본에 수록되어 있기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석연재간 송판본은 송촉각본과 또 다른 계통의 판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1)]

이외에 송대의 판본으로 『文苑英華』에 수록된 낙빈왕의 문장이 상당히 완정하며 문헌 자료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또한 『사고전서총목제요』에 따르면, 송대에 낙빈왕의 시문집으로 『百道判』 3권이 전해졌다고 하는데 역시 일실되었다.[13)]

(2) 명대와 청대의 주요 판본

명대와 청대에는 10권본 『駱賓王文集』 뿐 아니라, 8권본, 6권본, 4권본, 3권본 등의 판본이 간행되어 전해졌다. 각 판본의 체례를 보면 宋, 元 시기에는 아직 문체의 분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듯 문체의 분류를 하지 않았으며, 明, 淸 시기에 나온 판본들은 비교적 의식적으로 문체에 따라 분류하였다.[14)]

8권본은 明 王衡이 주석을 붙이고 淩毓梢가 간행한 판본에서 비롯되었는데, 雙

4C2- 당69ㅇ)에 각각 소장되어 있으며 “宣統三季(1911)閏六月用秦氏石研齋影宋本精印”이라는 刊記를 확인할 수 있다.

11) (中) 葛亞傑, 2013 「石研齋本 『駱賓王文集』版本價値探析－兼談宋刻蜀本」, 『文獻』, 37-38면.

12) (中) 葛亞傑, 2013 위의 논문, 46-47면.

13) (淸) 永瑢, 1999 『四庫全書總目提要』, “其集新、舊 『唐書』皆作十卷。宋 『藝文志』 載有 『百道判』 三卷, 今並散佚。”, 771면.

14) (中) 葛亞傑, 2013 앞의 논문, 90-92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色套印의 방법을 사용하여 正文은 宋體의 검은 글씨로 찍고 評釋은 楷體의 붉은 글씨로 찍어서 판식이 정갈하고 인쇄가 깨끗하였다.

6권본은 萬曆 연간에 명대의 虞九章, 陸宏柞, 童昌柞가 주석을 붙여 간행한『唐駱賓王文集』6권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책은 주석과 평점을 함께 붙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명 金繼震의『唐駱先生文集』6권본이나, 崇禎 연간 陸鳴勳의『駱賓王文集』6권본, 萬曆 30년(1602) 黃蘭芳의『重訂駱丞集』등이 모두 6권본 계통의 판본이다.

4권본은 明 陳魁士가 주석을 붙인 『駱子集注』에서 시작되었으며, 萬曆 7년(1579) 劉大烈이 陳魁士의 주석본을『新刊駱子集注』라는 제목으로 다시 간행한 판본이 상당히 유행하였다. 明 顔文選이 후에 이 판본을 다시 補注한『駱丞集注』도 참고할 만한 판본이다. 청대에는 乾隆 46년(1781) 項家達이『駱丞集』4권본을 포함한『初唐四傑集』을 간행하였다. 3권본으로는 萬曆 연간에 明 施鳳來가 評注를 달고 余文傑의 自新齋에서 간행한 판본인『鼎鐫施會元評注選輯唐駱賓王狐白』3권이 전한다.

2권본 계통은 주로 낙빈왕의 시집으로서 시와 부만을 수록한 판본들이다. 시집이 단독으로 간행된 것은 南宋 陳氏書棚本에서 간행한『駱賓王文集』2권이 처음이었으며, 詩와 賦만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南宋陳道人家本"이라고 지칭되며 청대에『駱賓王集』1책으로 번각되었고, 또 청 江標의『唐人五十家小集』에도 번각본으로 수록되었다. 南宋의 陳道人이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가 간행한 것으로 전해지는『駱賓王文集』2권은 역대의 낙빈왕 시집의 祖本이 되었다.

낙빈왕 시집은 이후에 단행본으로 간행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시선집이나 총서본에 포함되어 함께 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명 嘉靖 19년(1540) 朱警의『唐百家詩』에『駱賓王文集』이 상하권으로 포함되었고, 명 黃埠의『唐十二家詩』에 낙빈왕의 시집 2권이 수록되었다. 명 嘉靖 연간에 黃淳東의 壁圖書府에서 張遜業이 편차한『十二家唐詩』를 간행하였는데, 그 중에『駱賓王文集』2권이 수록되어 있다. 또 楊一統이 편찬한『唐十二名家詩』중에도『駱賓王集』1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許自昌이 편찬한『十二家唐詩』에도『駱賓王文集』2권이 실려 있는데, 목록은 張遜業本

과 동일하다. 그 외에 『唐八家詩』와『唐六家詩』에 수록된 것도 모두 역시 동일한 판본 계통을 잇고 있다.

낙빈왕 시문집 중에서 가장 통행되는 판본은 道光 23년(1843)에 淸 陳熙晋(1791-1851)이 箋注를 붙여서 간행한『駱臨海集箋注』이다. 淸 陳熙晉의『駱臨海集箋注』는 기존의 판본들을 거의 모두 참고하였고 또한 일실된 시문들을『全唐詩』,『全唐文』,『文苑英華』등에서 찾아 보충하여 편정한 것으로, 지금까지 전하는 낙빈왕문집의 중국 판본들 중에 가장 완정하다고 평가된다. 이 책에 수록된 작품들은 詩 120제 133수, 文 35편, 詩와 賦의 竝序 11편, 賦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한국에도 명대와 청대의 낙빈왕 시문집이 여러 종 소장되어 있으므로 실물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에 중국에서 간행된 역대 낙빈왕 시문집의 주요 판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5)]

시기	서명	권수	편찬 및 간행처	판본형태	기타사항	비고
唐中宗	駱賓王文集	10권	郗雲卿			일실
宋	駱賓王文集	10권	蜀刻本	11행20자 白口, 左右雙邊	6-10권은 毛晉 汲古閣影宋抄本을 덧붙임	
南宋	駱賓王文集	2권	陳道人			
明翻元本	駱賓王文集	10권		11행18자		四部叢刊
明本	駱賓王文集	10권		11행18자 白口, 左右雙邊		
明	駱賓王文集	10권		11행18자		淸 丁丙 跋

15) 중국본 낙빈왕 시문집의 판본에 대하여 中國古籍善本書目編纂委, 1993『中國古籍善本書目』, 上海古籍出版社; (中) 賈軍, 2013「駱賓王文集輯佚考辯」,『忻州師範學院學報』; (中) 葛亞傑, 2011『駱賓王文集板本研究』; (中) 丁小明, 2009「陳熙晉及『駱臨海集箋注』」,『貴圖學刊』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明成化弘治間	駱賓王文集	10권	五硯樓	9행22자	瞿熙邦 校跋本	
明	駱賓王文集	10권		10행21자, 白口, 四周單邊		
明	駱賓王文集	10권		9행21자, 白口, 左右雙邊		
明萬曆8년	駱丞文集	10권	原一魁	9행21자, 白口, 左右雙邊		
明	新刻註釋駱丞集	10권	林紹	10행20자, 白口, 四周雙邊		
明	鐫太倉王氏音釋駱丞集	10권	書林 詹聖謨		王世貞 注	
明	唐十二名家詩	不分卷	楊一統		孫伯履公素 校	
明	鼎鐫施會元評注選輯唐駱賓王狐白	3권	余文杰 自新齋	10행21자, 白口, 四周單邊	施鳳來 評注	
明萬曆7년	新刊駱子集注	4권	劉大烈	10행22자, 白口, 四周雙邊	陳魁士 注	清 丁丙 跋 清 駱士奎 校并跋
明萬曆19년	唐駱先生文集	6권	金繼震	7행17자, 白口, 左右雙邊		* 서울대 소장
明萬曆19년	唐駱先生文集	6권	虞九章	9행18자, 白口, 左右雙邊	虞九章 註釋	清 沈復燦, 丁丙 跋
明萬曆	新刻唐駱先生文集註釋評林	6권	建寧書林 余仙源	11행20자, 白口, 四周雙邊	虞九章 註釋	
明萬曆	唐駱先生文集	6권	楊爲棟	9행18자, 白口, 左右雙邊		
明萬曆24년	靈隱子	6권	陳大科	10행20자, 白口, 四周雙邊	陳魁士 注	清 戈襄 校
明萬曆30년	重訂駱丞集	6권		9행18자, 白口, 四周單邊	黃蘭芳 評注	
明萬曆35년	刻梅太史評釋駱賓王文抄神駒	4권	閔書林 劉大易	10행20자, 白口, 四周單邊	梅之煥 釋	

明萬曆43년	駱丞集注	4권	顔文選	9행 20자, 白口, 四周單邊	顔文選 注	
明	類選註釋駱丞全集	4권		9행20자, 白口, 四周單邊	顧從敬 輯 陳繼儒 注	
明崇禎	唐駱臨海文集	4권		8행19자, 白口, 四周單邊		
明萬曆	唐駱先生文集	8권	凌毓枏	8행18자, 白口, 四周單邊	王衡 評釋	
明崇禎	駱丞集	8권	張燮輯			
淸乾隆	駱丞集	4권	項家達			
淸康熙46년	駱臨海集	10권	黃之琦(綺) 覺非齋	9행20자, 白口, 左右雙邊	趙忠補 輯	
淸	駱賓王文集	10권			趙宗建 校	
淸咸豐	駱臨海集箋注	10권			陳熙晉 箋注	

3. 朝鮮本 駱賓王 詩集의 刊行과 流轉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은, 明 田瀾이 唐 駱賓王(630?-684?)의 시를 詩體에 따라 五言古詩, 七言古詩, 五言律詩, 五言排律, 五言絶句, 七言絶句 등으로 분류하고 총 122詩題의 시를 편정하여 수록한 시집을 조선에서 다시 목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의 형태와 간행 상황, 전파 경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의 간행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은 현재 일본 東洋文庫에 소장되어 있고 이 책의 복제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이미지를 현재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책은 모두 1冊으로 52張으로 구성

되었고, 형태 사항을 보면 四周單邊 半郭 21.1 × 16.5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의 특징을 가진 목판본이다.

이 책의 체제를 보면, 본서의 표지 뒤의 1장에는 "癡堂翰墨"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고, 2장-b면부터 4장-a면에 걸쳐 「唐書文藝傳」이 실려 있다. 「당서문예전」은 『舊唐書』와 『新唐書』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두 책의 내용을 합하여 윤색하여 실은 것이다. 특이한 것은 序文이 실려 있지 않다는 것인데, 최초의 문집 편찬자인 郗雲卿의 서문도 실려 있지 않다.

5장부터 11장까지는 수록된 詩의 목록이 적혀 있는데, 시제는 모두 122題에 편수는 131수이다. 수록된 詩題를 보면 五言古詩 2수, 七言古詩 4수, 五言律詩 65수, 五言排律 43수, 五言絶句 7수, 七言絶句 1수 등 총 122제가 수록되었으며, 오언율시 중 「同辛簿簡仰酬思玄上人林泉」 4수, 「樂大夫挽詞」 5수, 「丹陽刺史挽詞」 3수를 모두 계산하면 도합 131수가 된다.

11장-b면부터는 시의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첫 행에는 "唐駱賓王詩集"이라고 적혀 있고 둘째 행과 셋째 행의 하단에 각각 "臨海丞義烏駱賓王著", "兵部主事長安田瀾編校"라고 적혀 있으며, 넷째 행에 "五言古詩"라고 쓰여 있고 다섯째 행에 "夏日遊德州贈高四"라는 시제가 나온다.

편자 田瀾(생졸년 미상)은 명대의 陝西省 長安縣 사람이다. 『陝西通志』에 의하면, 田瀾은 弘治 14년(1501) 擧人으로 "長安人"으로 설명되어 있고, 같은 책의 홍치 18년(1505)에는 進士로서 "參政"이 되었다고 쓰여 있다. 전란이 본서를 편찬할 당시 임직하였던 "兵部主事"는 正六品의 관직이므로 그가 본서를 편찬한 시기는 아마도 출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 正德 연간에서 嘉靖 연간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16] 田瀾이 본서를 편정했을 때는 당연히 그전에 나온 낙빈왕의 시문집 판본들을 참고하였을 것이지만, 어떤 판본을 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조선본 『당낙빈왕시집』은 正德과 嘉靖 연간 사이에 明 田瀾이 편정한 중국본을 저본으로 하여 조선 中宗과 明宗 연간 사이에 간행한 목판본으로 추정된다. 田瀾

16) (日) 藤本幸夫, 앞의 논문, 273면.

이란 인물의 행적도 뚜렷하지 않으며 또 이 책과 관련된 서문이나 발문 등이 없으므로 중국본 낙빈왕 시문집 판본과 조선본과의 연원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낙빈왕의 중국본 시문집 판본들 가운데 조선본과 동일한 체제와 내용을 가진 판본은 없다는 것이다. 1585년경에 간행된 『古事撮要』의 密陽冊版 항목에 『駱賓王集』이 기록되어 있는데,[17] 이 밀양부 간행본이 조선본 『당낙빈왕시집』과 같은 판본일 가능성도 있다.

조선의 문헌 자료들 속에 낙빈왕에 대한 자료가 많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보면, 다른 당시 작가들에 비해 낙빈왕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던 듯하다. 한국한시사의 흐름을 보면, 明宗, 宣祖 시기에는 이전의 宋詩風 일색이던 시풍이 唐詩風으로 전환되며 唐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 가운데는 조정과 정계의 중심인물이었고 또한 문인으로서 당시 문단의 주역이기도 하였던 朴淳(1523-1589)이 있었으며, 또 그의 영향을 받아 唐詩의 詩學에 전념하여 盛唐詩에 버금가는 한시들을 써내면서 三唐詩人으로 불렸던 崔慶昌(1539-1583), 白光勳(1537-1582), 李達(1539-1612) 등의 활약이 있었다. 朴淳 등이 중시하고 시풍을 배우고자 하였던 唐代의 시인들로 주로 李白, 王維, 孟浩然 등이 꼽힌다.[18]

낙빈왕은 이들처럼 손꼽히는 당시의 대가는 아니므로, 조선의 한시 관련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나 낙빈왕은 初唐四傑의 한 사람으로서 강건하고 힘찬 기상을 풍기는 邊塞詩의 시풍을 선도하였으며, 初唐詩가 기교와 풍격면에서 성숙하고 발전하며 盛唐詩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시인들 중의 하나이다. 낙빈왕의 시를 읽고 학습하는 것은 唐詩의 풍격을 배우는 데 매우 유익하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낙빈왕의 시집이 조선에서 唐詩風이 중시되고 唐詩의 학습에 관심을 기울이던 시기에 간행되었던 것은 일정한 연관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

17) 魚叔權, 『古事撮要』 권3 (張伯偉, 2005 『朝鮮時代書目叢刊』, 中華書局, 1466면).

18) 김상일, 1993 「朴淳의 唐詩風 추구와 그 한시사적 의의에 대하여」, 『東院論集』 6, 2면.

2)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의 일본으로의 유전

그러나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이 간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목판본『당낙빈왕시집』은 전란 가운데서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거의 소실되거나 일실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하는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은 앞서 말한 대로 일본 東洋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것뿐이며, 한국에도 중국에도 이와 같은 판본이 전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이 일본으로 유전되어 전해지게 된 경위는 어떨까.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을 보면 "癡堂翰墨", "今井文庫", "日本國王之印", "苔香山房之印", "于川艸堂之印", "深川文庫", "芭蕉菴藏", "雲邨文庫", "山澤氏藏", "大宰大貳" 등의 藏書印이 찍혀 있다. 이러한 장서인을 통하여 이 책이 유전된 상황에 대해 짐작해볼 수 있다.

이 중에 "日本國王之印"과 "大宰大貳"는 오우치 요시타카(大內義隆, 1507-1551)의 장서인이다. 오우치 요시타카는 戰國 시기의 다이묘로서, 조선과 중국과의 문화 교류에 적극적이었으며 조선에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어 문물을 요청한 바 있었다. 특히 오우치 요시타카는 1536년부터는 大宰大貳의 관직에 있으면서 동일한 직명의 官印을 사용하였으니, 조선본에 동일한 관인이 찍혀 있는 것을 보면 이 책이 전래된 것은 오우치 요시타카가 임직한 이후일 것이다. 그리고 通信符로써 사용된 "日本國王之印"이 찍힌 것을 보면 이 책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대외무역의 물품으로 일본에 전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이 책은 오우치 요시타카가 조선과의 무역에서 사들인 서적으로서 일본에 전래되었던 것이다.[19]

---

19) (日) 藤本幸夫, 앞의 논문, 285-286면. 오우치 요시타카(大內義隆, 1507-1551): 일본 전국 시기의 다이묘. 야마구치(山口)를 교토풍으로 정비하고, 로마 가톨릭의 포교를 허락하는 등, 야심이 많고 개방적인 인물이었다. 1536년에는 조정으로부터 大宰大貳의 관직을 얻었다. 명나라, 조선과의 무역에 적극적이었으며, 후기에는 "日本國王之印"이라는 通信符를 얻어 공식적인 대외 무역도 실시하였다. 조선으로부터 대장경 등의 서적을 수입해 독자적인 오우치판(大內版)으로 다시 출판하는 등 야마구치(山口)를 중심으로 한 오우치 문화(大內文化)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야마구치에서는 번역본 출판이나 명과 조선에서 수입한 책을 파는 가라혼야(唐本屋) 같은 책방도 존재하고 있었으며, 또 명으로 가는 견명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은 일본으로 유전되어 오우치 문고에 소장된 후 19세기까지 소장처에 큰 이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장서인의 주인이 확실치 않지만 오우치 문고 이후 이 책의 소장인들은 대부분 19세기 인물들이다.

“深川文庫”와 “今井文庫” 장서인의 주인인 스즈키 마토시(鈴木眞年, 1831-1894)는[20] 일본 에도 시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활동했던 系譜 연구가이며 국학자이다. 그는 메이지 원년(1868)부터 今井文庫를 맡았으므로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이 메이지 시대에는 今井文庫로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苔香山房之印”의 주인인 기무라 소세키(木村素石, 1836-1903)는 俳人 출신으로 三井物產의 부사장을 지냈으며 “苔香山房之印”, “素石園記” 등의 장서인을 사용하였으니, 그 역시 한때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을 소장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雲邨文庫” 장서인의 주인인 와다 츠나시로(和田維四郎, 1856-1920)는[21] 일본의

선(遣明船)이나 사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해외에서 이주해 오는 사람도 많았다. 오우치씨의 저택이었던 오우치지노 타테에는 야마구치도노 중문고(山口殿中文庫), 오우치 문고라고도 불리는 서고가 있어 국내외의 서적이 모였다.

20) 스즈키 마토시(鈴木眞年, 1831-1894): 일본 에도 시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까지 활동했던 系譜 연구가이며 국학자이다. 젊은 시절 승려로 지낸 적이 있었으며 환속한 후 紀州德川 家에 소속되어 系譜 편집사업을 담당하였다. 메이지 유신 후에도 彈正台에 소속되어 계속하여 계보 편찬 업무를 맡았으며, 다수의 계보집을 편찬하였다. “今井文庫”, “深川文庫” 등의 장서인을 사용하였다.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의 15장에는 메이지 원년(1868)에 스즈키 마토시(鈴木眞年)가 금정문고(今井文庫)를 맡게 되었던 정황 등을 설명하는 글이 삽입되어 있다. 즉, “今井文庫는 기이구니(紀伊國, 지금의 와카야마현和歌山縣) 히다카가와(日高川) 팔신관[八社司]의 일가로서, 메이지 원년(1868)부터 故實家 스즈키 마토시(鈴木眞年)로 바뀌었다. (마토시의) 系譜學은 다하다 요시마사(田畑吉政)의 문하에서 유학한 것이고, 佛學은 天臺宗寬永寺에 들어가서 修業하였다.(今井文庫ハ紀伊國日高川八社司ノ一家ニシテ明治元年ヨリハ實家鈴木眞年ト改ム系譜學ハ田畑吉政ノ門ニ遊ヒ佛學ハ天臺宗寬永寺入テ修業ス)”라고 한다.

21) 와다 츠나시로(和田維四郎, 1856-1920): 일본의 광물학자, 서지학자이며 귀족원 의원이다. 어릴 때 開成學校에 입학하여 광산학을 공부한 후에 계속 광물, 제철, 광산 분야에서 교편을 잡았고, 메이지 24년(1891) 동경대학의 교수로 부임한 후 일본의 광물학과 제철업의 진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만년에 雲村이라는 호를 가졌으며 미츠비시(三菱) 그룹 3대 총수 이와사키 히사야(岩崎久弥)의 지원을 받아 고서적의 수집과 연구에 전념하였다. 그는『訪書餘錄』등을 저술하여 과학적인 서지학을 개척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1924년에

광물학자, 서지학자이다. 그는 만년에 雲村이라는 호를 사용하였으며, 미츠비시(三菱) 그룹의 지원을 받아 고서적의 수집과 연구에 전념하였다. 특히 와다 츠나시로가 수집했던 "雲邨文庫"의 책들은 대부분 모두 東洋文庫로 귀속되었으므로 이 책이 와다 츠나시로를 통하여 東洋文庫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서인을 통하여 보면, 이 책은 19세기 후반에 여러 소장자를 거쳐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장처인 東洋文庫로 이동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역대로 간행된 낙빈왕의 시집과 시문집의 기록을 살펴보면, 본서와 동일한 서지 사항이나 내용을 갖춘 판본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일본의 연구자료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나 서지사항을 갖춘 화각본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22] 한국에 소장된 조선본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본서와 동일한 서적이 없는 것을 보면, 본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통틀어 유일한 孤本이라고 할 수 있다. 저본이 된 중국본이 현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이 한국과 중국, 일본을 통틀어 유일한 孤本이라는 점은 그 자체로 충분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4. 朝鮮本 駱賓王 詩集의 체제와 특징

아래에서는 낙빈왕문집의 가장 이른 판본인 宋蜀刻本『駱賓王文集』과 조선본의 비교를 위주로 하여 詩題와 시구의 異同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四部叢刊에서 영인한 明翻元刻本, 淸 陳熙晉의『駱臨海集箋注』, 三民書局에서 간행한『新譯駱賓王文集』등을 참고 자료로 함께 살펴보았다.

東洋文庫가 설립된 후 와다 츠나시로오가 수집한 책들은 東洋文庫에 소장되었다. 장서인으로 "雲邨文庫"를 사용하였다.

22) (日) 藤本幸夫, 앞의 논문,『朝鮮學報』, 285-286면.

1) 중국본과 조선본의 詩句와 詩題의 글자 비교

아래 표는 주로 중국본과 조선본의 시구와 시제의 글자 비교를 통하여, 중국본에서 빠진 내용들이 조선본에서 어떻게 보충되었는지, 그리고 조선본에서 부족한 내용들은 본래의 송판본과 이후의 판본들에 어떻게 수록되었는지를 살핀 것이다.

詩題	宋蜀刻本	明翻元刻本	朝鮮本	淸 陳熙晉『駱臨海集箋注』	新譯駱賓王文集
夏日遊德州贈高四(幷序)	雖□闕三冬	雖□闕三冬	雖史闕三冬	雖文闕三冬 (一作史)	雖文闕三冬
	庶□雅韻	庶□雅韻	庶□雅韻	庶宏雅韻	庶宏雅韻
	則覬□連星	則覬□連星	則覬■連星	則覬紫耀連星 (一本無紫字)	則覬紫耀連星
	歎息□□ 將如何	歎息■■ 將如何	歎息■■ 將如何	歎息將如何	歎息將如何
	羅□翟公意	羅■翟公意	■■翟公意	羅悲翟公意	羅悲翟公意
在江南贈宋五之問	連洲擁夕漲	連洲擁夕漲	■■擁夕漲	連洲擁夕漲	連洲擁夕漲
	牽迹□□强恓惶	牽迹■■强恓惶	牽跡强恓惶	牽迹强悽惶	牽迹强恓惶
在獄詠蟬(幷序)	不哀傷而自怨	不哀傷而自怨	■■■而自怨	不哀傷而自怨	不哀傷而自怨
	聞蟪蛄之□聲	聞蟪蛄之■聲	聞蟪蛄之有聲	聞蟪蛄之流聲	聞蟪蛄之流聲
代女道士王靈妃贈道士李榮	誰□遙遙期七夕	誰□遙遙期七夕	誰使遙遙期七夕	誰使遙遙期七夕	誰使遙遙期七夕
	□使青年學劍端	■使青年學劍端	須使青年學劍端	肯使青牛學劍端 (肯一作須)	肯使青年學劍端
晚泊蒲類	晚泊蒲類	晚泊蒲類	晚泊蒲類津	夕次蒲類津	晚泊蒲類
早發淮口望盱眙	早發淮口望盱眙	早發淮口望盱眙	早發淮口望肝胎	早發淮口回望盱眙	早發淮口望盱眙
	唯有負心在, 獨映寒潭淸	唯有負心在, 獨映寒潭淸	唯有負心在, ■映寒潭淸	惟有貞心在, 獨映寒潭淸	唯有貞心在, 獨映寒潭淸
遠使海曲春夜多懷	端居□慮盈	端居百慮盈	端居萬慮盈	端居百慮盈	端居百慮盈
晚憩田家	山形類九□, □勢急三巴	山形類九析, 水勢急三巴	山形類九折, 水勢急三巴	山形如九折, 水勢急三巴	山形類九折, 水勢急三巴

至分陜	邵南分沃疇	邵南分沃疇	■■分沃疇	召南分沃疇	邵南分沃疇
過張平子墓	西鄂該通理, 南□擅德音	西鄂該通理, 南□擅德音	西鄂談通理, 南州擅德音	西鄂該通理, 南陽擅德音	西鄂該通理, 南陽擅德音
遊兖郡逢孔君自衛來欣然相遇若舊	遊兖部逢孔君自衛來欣然相遇若舊	遊兖部逢孔君自衛來欣然相遇若舊	遊兖郡逢孔君自衛來欣然相遇若舊	遊兖郡逢孔君自衛來欣然相遇若舊	遊兖郡逢孔君自衛來欣然相遇若舊
宿溫城望軍營	兵符關帝□	兵符關帝闕	兵符關帝闕	兵符關帝闕	兵符關帝闕
	臨戎想□動, 還應雪漢耻	臨戎想顧動, 是應雪漢耻	臨戎想顧動, 還應雪漢恥	臨戎想霍動, 還應雪漢恥	臨戎想霍動, 是應雪漢恥
白雲抱幽石	重巖□危石	×	重巖抱危石	重巖抱危石	重巖抱危石
四月八日題七級	□出有爲界	×	我出有爲界	我出有爲界	我出有爲界
	曲□号蓋煙	×	曲音號蓋煙	曲音號蓋烟	曲音號蓋烟
春雲處處生	四望春雲□	×	四望春雲生	四望春雲生	四望春雲生
早秋出塞寄東臺詳政學士	□□蘭廷閣, 蓬山疑禁園	시구 ×	蘭■■廷閣, 蓬山擬禁園	蘭渚淨廷閣, 蓬山款禁園	蘭室薰廷閣, 蓬山款禁園
和李明府	飛向洛陽□	×	飛向洛陽城	飛向洛陽城	飛向洛陽城
易水送人	於易水送人一絶	易水送人	易水送別	於易水送人一絶	易水送人
別李嶠得勝字	別李嶠得勝	別李嶠得勝字	別李嶠得勝字	別李嶠得勝字	別李嶠得勝字
在兖州錢宋五	在兖州錢宋五	在兖州錢宋五	在兖州錢宋五之問	在兖州錢宋五之問	在兖州錢宋五
詠雲酒	詠雲酒	詠雲酒	春酒	詠雲酒	詠雲酒
過故宋	過故宋	過故宋	過故宋舊都	過故宋	過故宋
傷祝阿王明府	□與良難驗	契與良難驗	契與良難驗	與善誠難驗	與善良難驗
詠懷古意上裵侍郎	□□不霑用	■■不霑用	■■不霑用	磨鉛不霑用	磨鉛不霑用
久戍邊城有懷京邑	桂滿夕輪孤	桂滿夕輪孤	桂滿夕輪■	桂滿夕輪孤	桂滿夕輪孤
	嬌繁玉女壺	嬌繁玉女壺	■繁玉女壺	嬌繁玉女壺	嬌繁玉女壺
幽縶書情通簡知己	幽縶書情通簡知己	幽縶書情通簡知己	幽縶書情通簡知己	獄中書情通簡知己	幽縶書情通簡知己
	揆拙慚周□	揆拙慚周■	揆拙慚周道	揆畫慙周道	揆拙慚周道
	莫言韓長作□□	莫言韓■■,	莫言韓長孺,	莫言韓長孺,	莫言韓長孺,

	不然灰	長作不然灰	長作不然灰	長作不然灰	長作不然灰
秋晨同淄州毛司馬秋九詠	帶□泛粧樓	帶■泛粧樓	帶粉泛粧樓	帶粉泛妝樓	帶粉泛妝樓
秋雲	泛□搖光動, 臨□瑞色明	泛■搖光動, 臨■瑞色明	泛斗瑤光動, 臨陽瑞色明	泛斗瑤光動, 臨陽瑞色明	泛斗瑤光動, 臨陽瑞色明
詠照	詠照	詠照	詠照子	詠照	詠照

조선본에 수록된 시들의 내용을 송촉각본의 시와 대조해보면, 송촉각본에서 空格으로 남긴 것들을 조선본에서는 墨釘으로 남겼거나 혹은 글자를 보충하여 넣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로부터 조선본이 송촉각본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본과 중국본의 詩句와 詩題의 글자를 비교하였을 때 나타나는 양상들은 다음과 같다.

① 중국본과 조선본의 詩句의 글자가 다른 경우

조선본의 시구 중에는 여타의 중국본 판본과는 다른 시구를 포함하고 있는 시편들이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어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한 시편 중에서 「夏日遊德州贈高四(幷序)」, 「代女道士王靈妃贈道士李榮」, 「遠使海曲春夜多懷」, 「過張平子墓」의 시에서는 각각 "雖史闕三冬", "須使靑年學劍端", "西鄂談通理, 南州擅德音", "端居萬慮盈" 의 시구가 다른 중국본 판본에 수록된 시구들과 확연히 다르다. "雖史闕三冬", "須使靑年學劍端" 의 시구에 대하여는 다른 판본에서 "一作史"라든지 "一作須"라든지 하여 유사한 판본 계통의 시집이 전해내려 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지만, "西鄂談通理, 南州擅德音", "端居萬慮盈"에서 쓰인 "州" 자와 "萬" 자는 완전히 다르다. 이로써 보건대 조선본은 기존의 중국본 판본과는 또 다른 판본 계통을 전승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중국본에 누락된 詩句가 조선본에 있는 경우

사부총간본 즉 元刊本의 영인본 가운데서, 조선본에 수록된 「白雲抱幽石」, 「春雲處處生」, 「和孫長史秋日臥病」, 「蓬萊鎭」「四月八日題七級」,「夏日夜憶張二」, 「和李

明府」 등의 시는 사부총간본의 목록에는 수록되었지만 실제의 시구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즉 편명은 전해지고 있지만 시구는 이미 당시에 실전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사부총간본이 영인한 元刊本에는 이미 일실된 시가 적지 않았다.

이외에도 「春雲處處生」, 「秋晨同淄州毛司馬秋九詠」, 「秋雲」 등의 시를 살펴보면, 송촉각본에 빠진 부분들이 조선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혹은 송촉각본과 원간본 등에서 누락되었으나 후대의 판본을 통하여 輯佚된 시구들이 조선본의 시구들과 동일한 것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중국본과 조선본에 쓰인 詩題의 글자가 다른 경우

조선본에 쓰인 시제의 글자가 중국본의 시제와 다른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중국본의「晩泊蒲類」, 「詠雲酒」, 「過故宋」, 「詠照」는 조선본에서는 각각 「晩泊蒲類津」, 「春酒」, 「過故宋舊都」, 「詠照子」라는 편명으로 쓰였다. 이로부터 보건대, 조선본은 역시 기존에 잘 알려진 중국본의 판본 계통과 다른 판본 계통을 전승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비교를 통하여 보면 조선본은 기존의 중국본과 다른 판본 계통을 전승하고 있으므로, 조선본은 기존의 중국본 판본을 보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본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낙빈왕 시문의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학술 자료임에 틀림없다.

2) 중국본과 조선본에 수록된 詩篇의 유무

상해고적출판사의 影印本 송판본과 조선본의 체제를 비교해보면, 송판본은 1권에 賦가 수록되었고 2-5권까지 詩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본은 모두 1권으로 권수가 구별되어 있지 않고 詩體를 오언고시・칠언고시・오언율시・오언배율・오언절구・칠언절구로 분류하였으며, 송판본에 포함된 賦는 수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송판본의 권10 雜著 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樂大夫挽詞」 5수, 「丹陽刺史挽詞」 3수가 조선본에서 오언율시로 편정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2003년 대만 三民書局에서 출판한『新譯駱賓王文集』의 詩題를 기준으로 宋蜀刻本『駱賓王文集』과 四部叢刊에서 영인한 明翻元刻本, 淸 陳熙晉의『駱臨海集箋注』, 그리고 조선본에 수록된 詩題들을 비교하여 보았다.

新譯駱賓王文集	宋蜀刻本	明翻元刻本	朝鮮本	淸 陳熙晉 駱臨海集箋注	비고
帝京篇	×	×	×	上吏部侍郎帝京篇	
行軍軍中行路難	行軍軍中行路難	×	軍中行路難	從軍中行路難	
行路難(同辛常伯軍中作	×	軍中行路難	行路難(同辛帝伯軍中作)	行路難(同辛常伯軍中作	
贈道士	×	×	贈道士	秋日仙遊觀贈道士	王子安集
秋日山行簡梁大官	秋日山行簡梁大官	秋日山行簡梁大官	×	秋日山行簡梁大官	
別宋五之問	×	×	別宋五之問	失題	
送劉少府遊越州	×	×	送劉少府遊越州	送劉少府遊越州	文苑英華
			背下蟬聲斷 悽悽聽離鉉	露下蟬聲斷 悽斷聽離鉉	
送軍行	×	×	送軍行	從軍行	文苑英華
			唯留死報君	唯當死報君	
稱心寺	×	×	稱心寺	稱心寺	全唐詩
陪潤州薛司空丹徒桂明府遊招隱寺	×	×	陪潤州薛司空丹徒桂明府遊招隱寺	陪潤州薛司空丹徒桂明府遊招隱寺	全唐詩
靈隱寺	×	靈隱寺	靈隱寺	靈隱寺	
		門對浙江潮 冰輕葉互凋 *搜■滌	門對浙江潮 冰輕葉互凋	門聽浙江潮 冰輕葉未凋	
×	×	×	**登總持寺浮圖**	×	宋之問集

송간본과 조선본을 비교해보면, 조선본에 수록된 시 중에 송간본에 수록되지 않은 시들이 있다. 「行路難」, 「贈道士」, 「別宋五之問」, 「送劉少府遊越州」, 「送軍行」, 「稱心寺」, 「登總持寺浮圖」, 「陪潤州薛司空丹徒桂明府遊招隱寺」, 「靈隱寺」 등의 9수가 그러하다. 조선본 낙빈왕시집은 詩 122題에 131首가 수록되어 있는데, 송간본과 사부총간본에 비해 「秋日山行簡梁大官」과 「帝京篇」이 빠져 있다.

사부총간본은 조선본에 비해 「軍中行路難」, 「贈道士」, 「別宋五之問」, 「送劉少府遊越州」, 「送軍行」, 「稱心寺」, 「登總持寺浮圖」, 「陪潤州薛司空丹徒桂明府遊招隱寺」 등의 시가 수록되지 않았다. 그 외에 위의 표에는 수록하지 않았지만 「鄭安陽入蜀」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로써 보건대 사부총간본이 영인한 元刊本 낙빈왕시집은 송대를 거치면서 이미 일실된 시가 적지 않았다.

淸 陳熙晉의 『駱臨海集箋注』는 기존의 판본들을 모두 참고하고 또한 일실된 시문들을 『全唐詩』, 『全唐文』, 『文苑英華』 등에서 찾아 보충하였다. 수록된 작품들은 詩 120제 133수, 文 35편, 詩와 賦의 竝序 11편, 賦 3편으로, 이 책은 낙빈왕 시문집의 중국 판본들 중에 가장 완정하다고 평가받는 통행본이다. 그러나 淸 陳熙晉이 箋注한 『駱臨海集箋注』의 판본과 조선본을 비교해보면, 조선본 중에 수록된 몇 편의 시는 『낙임해집전주』에도 실려 있지 않은 것들이다.

위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宋蜀刻本이나 明翻元刻本에 실려 있지 않으나 조선본과 『낙임해집전주』에는 수록된 시들이 있으며, 어떤 시는 조선본에만 수록되어 있고 『낙임해집전주』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위의 표에서 음영이 들어간 부분의 시들을 자세히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역대 중국본에서 일실된 적이 있으나, 조선본에 수록되어 전하는 시편 -「秋日仙遊觀贈道士」, 「送劉少府遊越州」, 「送軍行」, 「稱心寺」, 「陪潤州薛司空丹徒桂明府遊招隱寺」

조선본의 「贈道士」는 진희진의 『낙임해집전주』에 「秋日仙遊觀贈道士」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진희진의 「낙임해집전주·범례」에 따르면, 이 시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판본들에는 실리지 않고 일실되었던 것인데, 자신이 『王子安集』에서 찾

아서 보충하였다고 한다. 조선본의 「贈道士」 시는 5언 8구로 五言律詩로 분류되어 있는데 반해, 「秋日仙遊觀贈道士」는 조선본의 앞에 "石圖分帝宇, 銀牒洞靈宮. 回丹縈岫室, 複翠上巖櫳"이라는 네 구가 더 해져 있다.

또한 진희진의 『낙임해집전주·범례』에 따르면, 「送劉少府遊越州」와 「送軍行」은 일실되었던 것을 『文苑英華』에서 찾아서 보충한 것이고, 「稱心寺」와 「陪潤州薛司空丹徒桂明府遊招隱寺」는 일실되었던 것을 『全唐詩』에서 찾아서 보충한 것이라고 하였다.[23] 진희진이 일실되었다고 하였던 시들은 이미 조선본 『당낙빈왕시집』에 수록되어 있었던 것들로서 이로부터 조선본이 중국의 역대 판본들에서 일실되었다고 여겨졌던 낙빈왕의 시들을 상당히 온전하게 수록하여 보존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② 중국본에서 詩題가 일실되었으나 조선본에는 詩題가 있는 시편: 「別宋五之問」

조선본의 「別宋五之問」은 『낙임해집전주』에는 「失題」로 되어 있는데, 「낙임해집전주·범례」에 따르면, 이 시는 본래 제목을 잃어버려서 「餞駱四得鐘字」의 뒤에 붙어 있었던 것을 진희진이 독립된 시로 나누었으나 그 제목은 알지 못하여 「失題」로 둔 것이다.[24] 실제로 낙빈왕은 宋之問과 일정한 교유가 있었으며, 낙빈왕이 송지문과 교유하면서 주고 받은 시들이 전해지고 있다. 조선본에 실린 「別宋五之問」 외에도 「在江南贈宋五之問」, 「在兗州餞宋五之問」, 「送宋五之問得涼字」의 시 등이 모두 낙빈왕이 송지문과 교유하면서 지은 시들이다.

③ 중국본에 수록되지 않았으나 조선본에 수록된 시편 -「登總持寺浮圖」

마지막으로 조선본에는 수록되었으나 宋本과 明翻元本, 『낙임해집전주』에는 실리지 않은 「登總持寺浮圖」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登總持寺浮圖」는 다른 중국 판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조선본에만 수록되어 있

23) (淸) 陳熙晉, 1981 「駱臨海集箋注凡例」, 『駱臨海集箋注』, 世界書局, 2면.

24) (淸) 陳熙晉, 위의 책, 2면. 참고로 조선본 「別宋五之問」은 다음과 같다. "甲子驅車入, 良宵秉燭遊, 人追竹林會, 酒獻菊花秋, 霜吹飄無已, 星河漫不流, 重嗟歡賞地, 翻召別離憂."

으므로 조선본의 가치를 입증해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이 시를 검색해보니 이와 유사한 시편이 宋之問의 『宋之問集』에 「登禪定寺閣 (一作登總持寺閣)」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었다.[25] 두 시는 글자가 다른 곳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행문의 흐름과 전체적인 詩境으로 보건대 같은 시로 볼 수 있다.

이 시가 낙빈왕의 시인지 송지문의 시인지에 대하여는 아직껏 중국학자들의 연구에서 논의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은 조선본의 존재가 중국에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登總持寺浮圖」가 송지문의 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 한 번도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낙빈왕의 시집에도 실려 있고 또 宋之問의 『宋之問集』에도 실려 있는 시가 또 한 편 있는데, 바로 「靈隱寺」시이다. 「靈隱寺」 시는 明翻元本과 조선본, 그리고 『낙임해집전주』에 모두 실려 있는데, 특기할 만한 점은 이 시가 宋之問의 『宋之問集』에도 실려 있다는 것이다.[26] 그리하여 「靈隱寺」시의 작자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唐 孟棨는 "송지문과 낙빈왕이 달빛 아래서 연구(連句)를 짓다[宋駱月下連句說]"라는 이야기를 인용하여, 「靈隱寺」 시는 기실 송지문과 낙빈왕이 함께 지은 것이며 두 시인의 문학적 교류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27]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고사를 그대로 신복하여 『太平廣記』, 『詩話總龜』, 『郡齋讀書志』, 『唐詩紀事』, 『唐才子傳』, 明 胡應麟의 『詩藪·內篇』등에서 모두 그 설을 따랐다. 그러나 明 王世貞은 『藝苑卮言』에서 이 시를 송지문의 작품으로 지목하였

---

25) (唐) 낙빈왕, 「登總持寺浮圖」, "梵宇出三天, 登玆望八川, 開襟俯城闕, 揮手拍雲煙, 函谷春山外, 昆池落日邊, 東京楊柳陌, 少別遂經年." 조선본 『당낙빈왕시집』.
(唐) 宋之問, 「登禪定寺閣 (一作登總持寺閣)」, "梵宇出三天, 登臨望八川. 開襟坐霄漢, 揮手拂雲煙. 函谷青山外, 昆池落日邊. 東京楊柳陌, 少別已經年." (中) 陶敏、易淑瓊 편, 2001 『沈佺期宋之問集校注』, 中華書局.

26) (唐) 낙빈왕, 「靈隱寺」, "鷲嶺鬱岧嶢, 龍宮鎖寂寥. 樓觀滄海日, 門對浙江潮. 桂子月中落, 天香雲外飄. 捫蘿登塔遠, 刳木取泉遙. 霜薄花更發, 冰輕葉未凋. 夙齡尚遐異, 搜對滌煩囂. 待入天台路, 看余度石橋." 조선본 『당낙빈왕시집』.

27) (中) 楊恩成, 2003 「宋之問與駱賓王聯句質疑」,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6期, 35-36면 재인용.

고,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송지문과 낙빈왕이 이미 교유가 있던 사이였다는 것을 이유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빈왕의 작품인지 송지문의 작품인지를 확정하는 정설이 없다.[28)]

「靈隱寺」 시로부터 비롯된 작자 논쟁의 예처럼, 「登總持寺浮圖」 역시 낙빈왕의 시와 송지문의 시가 정리와 편찬 과정에서 섞여 있다가 『송지문집』으로 귀속되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에는 조선본 『당낙빈왕시집』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낙빈왕과 송지문의 교유 관계 및 창작 관계에 대한 논쟁이 진행될 때 이 「登總持寺浮圖」가 언급된 적이 없다. 그러나 조선본 『낙빈왕시집』이 상당히 신뢰할 만한 판본인 만큼 이 시 역시 낙빈왕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그리고 앞서 논의가 진행되었던 「靈隱寺」시와 이와 관련된 낙빈왕과 송지문의 창작 관계 및 교유 관계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도 「登總持寺浮圖」는 매우 유효한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보건대 조선본 『당낙빈왕시집』은 『낙임해집전주』 이전에 일실된 시까지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완정한 체제를 가진 낙빈왕의 시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8) 唐 孟棨의 『詩本事・征異』에 실린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宋之問이 유배에서 풀려난 후 강남으로 가서 靈隱寺를 유람하게 되었는데, 달 밝은 밤에 행랑을 거닐며 "鷲嶺鬱岧嶢, 龍宮鎖寂寥"의 두 구절을 읊고는 다음 시구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 때 어떤 승려가 나타나 송지문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 구로 "樓觀滄海日, 門聽浙江潮"를 읊어주었는데, 송지문이 이에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 곧이어 "桂子月中落, 天香雲外飄. 捫蘿登塔遠, 刳木取泉遙. 霜薄花更發, 冰輕葉未凋. 待入天台路, 看余度石橋."를 읊어 시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승려가 알고 보니 행방을 감춘 낙빈왕이었다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두 시인이 이심전심하는 문학적 교유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美談으로 승화되었고, 현재는 "송지문과 낙빈왕이 달빛 아래서 연구(連句)를 짓다[宋駱月下連句說]"라는 제목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로 (中) 楊恩成, 2003 「宋之問與駱賓王聯句質疑」,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6期 ; (中) 蔡潤田, 2011 「疑案權作佳話看－宋之問、駱賓王與『靈隱寺』詩芻議」, 『名作欣賞』 4期 참조.

5. 나가는 말

唐 駱賓王은 五言律詩의 정형을 완성하고 七言長篇歌行詩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시에 風骨의 풍격을 불어넣음으로써 盛唐詩의 淸新한 격조를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낙빈왕의 5언시 중에 종군시와 변새시는 初唐四傑 중에서 수량이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담백하면서도 호방한 기세가 특징적이다.

그러나 낙빈왕은 역적으로 몰려 도주하였다고 하거나 혹은 죽임을 당하였다고 전해지는 등 비참한 말로를 보낸 탓에 자신이 문집을 편집할 겨를도 없었고 그의 시문을 거두어주는 사람도 없었던 듯하다. 그가 죽은 이후 唐 中宗의 명령으로 郗雲卿이 산실된 낙빈왕의 시문들을 모아 10권으로 편찬하였으나, 이 판본은 송말 명초까지 전해지다가 일실되었다. 그후에 역대로 낙빈왕 시문집의 여러 가지 판본이 전해졌는데 이 가운데 淸 陳熙晉의『駱臨海集箋注』10권이 가장 완정한 판본으로 꼽힌다.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은 조선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한 唐朝 낙빈왕의 시집으로서, 이 책은 明朝의 田瀾이 오언고시, 칠언고시, 오언율시, 오언배율, 오언절구, 칠언절구 등으로 낙빈왕의 시 122편을 詩體에 따라 분류하고 편정한 시집이 저본이 되었다. 중국에서 역대로 간행한 낙빈왕의 시집과 시문집의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본『당낙빈왕시집』과 동일한 서지 사항이나 내용을 갖춘 판본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일본의 연구자료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나 서지사항을 갖춘 일본본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에 소장된 조선본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본서와 동일한 서적이 없는 것을 보면,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통틀어 유일한 孤本이라고 할 수 있다.

장서인을 통하여 이 책이 일본으로 유전된 상황을 살펴보면, 오우치 요시타카(大內義隆)의 官印인 "大宰大貳"와 通信符로 사용된 "日本國王之印"으로 보아 이 책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대외무역의 물품으로 일본으로 전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은 19세기 후반에 "深川文庫"와 "今井文庫" 장서인의 주인인 스즈키 마토시(鈴木眞年), "苔香山房之印"의 주인인 기무라 소세

키(木村素石), 그리고 "雲邨文庫" 장서인의 주인인 와다 츠나시로(和田維四郎) 등을 거쳐 東洋文庫로 들어가게 되었다.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의 내용을 낙빈왕 시문집의 가장 이른 판본인 宋蜀刻本과 비교해보면,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은 송판본에 수록되지 않은 시들을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본을 청대 진희진의『낙임해집전주』와 비교해보면, 이전에 일실된 시까지 거의 모두 포함하여 상당히 완정한 체제를 지니고 있는『낙임해집전주』와 거의 동일한 수량의 시편이 실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선본에는 수록되었으나 宋本과 明翻元本,『낙임해집전주』에는 실리지 않은「登總持寺浮圖」는 또한 宋之問의『宋之問集』에「登禪定寺閣 (一作登總持寺閣)」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낙빈왕 시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다.

본서의 저본이 된 중국본이 현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선본『당낙빈왕시집』이 한국과 중국, 일본을 통틀어 유일한 孤本이라는 점은 그 자체로도 학술적 가치가 있지만, 중국본과의 비교를 통하여 본 결과 본서가 내용면에서도 중국본을 보충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하겠다.

논문투고일(2014. 4. 30), 심사일(2014. 5. 26), 게재확정일(2014. 6. 5)

〈참고문헌〉

(唐) 駱賓王, 1994『駱賓王文集』, 宋蜀刻本唐人集叢刊 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_____, 1929『駱賓王文集』, 四部叢刊影印明翻元刻本, 上海: 商務印書館, 民國 18.
_____, (淸) 陳熙晉 箋注, 1981『駱臨海集箋注』, 臺北: 世界書局, 民國 70.
_____, (中) 黃淸泉 註釋, 2003『新譯駱賓王文集』, 臺北: 三民書局.
(淸) 永瑢, 1999『四庫全書總目提要』, 海口市: 海南出版社.

안병국, 1984「駱賓王詩研究-作品論」,『중국문학』11, 한국중국어문학회.
김상일, 1993「朴淳의 唐詩風 추구와 그 한시사적 의의에 대하여」,『東院論集』6, 동국대학교 대학원.
안병국, 1995「駱賓王 생졸년 小考」,『중국문학』23, 한국중국어문학회.
강소영, 2000「申光漢 漢詩에 나타난 唐詩風的 특질」,『東方學』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백승석, 2010「駱賓王 詩文 성취의 재인식」,『중국어문학』55, 영남중국어문학회.
백진우, 2012「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소장 한국 고서에 대해: 자료 개관・연구 현황・연구 과제・특징적 면모를 중심으로」,『열상고전연구』36, 열상고전연구회.
(日) 藤本幸夫, 2006「朝鮮版『唐駱賓王詩集』攷」,『朝鮮學報』199・200 합병호, 朝鮮學會.
(中) 駱祥發, 2010『駱賓王全傳』, 상해: 상해인민출판사.
(中) 胡振龍, 2003「論駱賓王及其創作」,『江南社會學院學報』2기.
(中) 賈軍, 2013「駱賓王文集輯佚考辯」,『忻州師範學院學報』, 1기.
(中) 丁小明, 2009「陳熙晉及『駱臨海集箋注』」,『貴圖學刊』, 2기.
(中) 葛亞傑, 2011『『駱賓王文集』版本研究』, 浙江大學 中文系 碩士學位論文.
(中) 葛亞傑, 2013「石研齋本『駱賓王文集』版本價値探析－兼談宋刻蜀本」,『文獻』, 2기.
(中) 潘慧惠, 1992「駱賓王研究述略」,『杭州師範學院學報』, 2기.
(中) 唐朗, 2007「駱賓王邊塞詩分類研究」,『語文學刊』, 24기.
(中) 楊恩成, 2003「宋之問與駱賓王聯句質疑」,『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6期.
(中) 蔡潤田, 2011「疑案權作佳話看－宋之問、駱賓王與『靈隱寺』詩芻議」,『名作欣賞』, 4期.

Abstract

A Study about the Chosun-published『The poetry of Luo-Binwang of Tang dynasty(唐駱賓王詩集)』

Dang, Yunhui

Chosun-published『The poetry of Luo-Binwang of Tang dynasty(唐駱賓王詩集)』 is wooden printed book published in Chosun, which contains Luo-Binwang(駱賓王)'s 122 poetries edited by Tian-ran(田瀾) of Ming dynasty. This book is estimated to be published in middle Chosun period, and now is in the 'Doyobunko(東洋文庫)', a Japanese old book library.

Looking into the history of the anthologies of Luo-Binwang published in China, there is no record of the Chinese edition which is identical with the Chosun-bublished book. On the basis of some Japanese research materials, it is estimated to have no same Japanese edition, too. Moreover, this book has no equal edition in Korea now, so we can find that『The poetry of Luo-Binwang of Tang dynasty(唐駱賓王詩集)』is the one and only book that has the Luo-Binwang's poetries edited in Ming dynasty and was published in middle Chosun dynasty, now owned in the library of Japan.

Through the comparison with some other Chinese edition anthologies of Luo-Binwang, we can also find this Chosun-bublished book has some unique contents that were not contained in other Chinese edition book - like「Deng zongchisi futu(登總持寺浮圖)」. Although the Chosun-bublished『The poetry of Luo-Binwang of Tang dynasty(唐駱賓王詩集)』was based on the original Chinese edition, the original version do not exist any more, so enhancing the value of Chosun-bublished replica. Moreover, Chosun-published『The poetry of Luo-Binwang of Tang dynasty(唐駱賓王詩集)』was transferred to Japan through the foreign trade and transmitted to Japanese old books library, being the evidence of the exchange of old books between Chosun and Japan in sixteen century.

For all, we can say the Chosun-published『The poetry of Luo-Binwang of Tang dynasty(唐駱賓王詩集)』improves the cultural exchange among the old Korea, China and Japan and is the very meaningful evidence of literal and academical exchange among three countries.

Key words : Luo-Binwang(駱賓王), Chosun-published book, Doyobunko(東洋文庫), publication, old book, distribution